

시각적 보조도구 용도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번역에 대한 고찰

안 세 림
(한국외대)

1. 연구배경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응용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되면서, 시각적 보조도구로서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이하 “슬라이드”라 함) 활용은 교실에서부터 기업의 회의실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었다. 실제로 일반 직장인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작성하고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의 90%는 파워포인트로 작성된다고 한다(조진영 2002: 31). 통번역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는 흔히 접하게 되는 텍스트 형태이다. 대부분의 국제회의에서는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으며, 따라서 국제회의 통역사들에게 사전 준비를 위해 주어지는 자료도 슬라이드 형태로 된 것이 많다. 번역도 마찬가지여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슬라이드 활용은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기관에 소속된 번역사들이 다루는 텍스트 중에서 슬라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비단 기관 소속의 번역사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번역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슬라이드 번역에 대한 이러한 시장 수요에도 불구하고, 번역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한 교육이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텍스트는 언어 방향을 막론하고 기사문 등 완전한 문장으로 이어져 써 내려간 산문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부를 마치고 현장에 뛰어들어 초보 번역사들은 수업시간에 접하지 못했던 슬라이드 유형의 텍스트를 받아 들고 당황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산문형태의 번역에서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주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번역사 개개인은 나름의 슬라이드 번역 노하우를 체득해 나간다.

본고에서는 슬라이드라는 텍스트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번역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한 후, 슬라이드 번역의 시장수요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소개한다. 나아가 동일한 슬라이드 출발텍스트에 대한 전문번역사의 번역물과 통번역대학원 재학생의 번역물을 비교, 분석하여 슬라이드 번역에서 어떠한 문제점과 번역 상의 어려움이 관찰되며, 두 집단의 번역 간 차이점을 찾아보고, 슬라이드 번역에 유용한 전략이 도출되는지를 살펴본다.

2. 슬라이드 텍스트의 특성 및 번역에의 시사점

슬라이드 번역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슬라이드라는 텍스트 종류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슬라이드라 함은 시각적 보조도구로서의 슬라이드만을 가리키기로 하며, 따라서 발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슬라이드로 논의를 한정한다. 즉, 발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사용되는 슬라이드(읽기만을 위한 참고자료 등)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또한 슬라이드의 구성요소 중 텍스트 외적 요소(이미지, 색상선택, 레이아웃배치 등)는 대개 텍스트의 원 생산자에 의해 결정되어 번역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 텍스트 요소만을 논의하며, 프레젠테이션 제작과 실행에 관련한 여러 실무서적의 관련내용

을 참조하였다.

독일의 기능주의 번역학자 라이스(Reiss)가 정립한 텍스트 분류체계를 적용해본다면(Munday 2008: 72-74), 우선 슬라이드는 정보적(informative) 텍스트이다. 슬라이드에 포함된 내용은 대개 화자의 발화내용 중 중요도에 따라 선택된 내용이거나 또는 발화내용의 주요 내용만을 간추린 것이다. 따라서 슬라이드는 의미전달 기능이 중요한 정보적 텍스트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슬라이드는 표현적(expressive)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슬라이드 텍스트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형식에도 제약이 있고,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슬라이드가 작용적(operative) 텍스트인지의 여부는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해당 발화행위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시선을 끄는 디자인으로 청중이 슬라이드를 “바라보도록 하는 기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작용적 텍스트의 성격도 가진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는 비록 글로 쓰인 텍스트이지만 반드시 말과 함께 전달된다는 점에 있어서 다매체(multi-media)적 특성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슬라이드는 다양한 텍스트적 특성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일반적 텍스트와 비교하였을 때 슬라이드가 가지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각적 보조도구(visual aid)”라는 용어의 함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슬라이드는 보조 기능을 하는 부차적(secondary)인 텍스트이다.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발화상황에서 1차적 텍스트는 화자의 발화이며, 슬라이드는 선택적인 존재이다. 즉, 슬라이드는 발화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이지만, 슬라이드가 없다고 해서 발화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프레젠테이션 실무 서적에서도 “시각적 보조도구가 발표를 지배하거나 발표자의 역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Seiler 1982: 295, 필자번역)”, “시각적 보조도구는 아이디어나 발표 기술을 대체할 수 없다(Rosenblatt 1977: 252, 필자번역)” 등 시각적 보조도구의 부차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텍스트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슬라이드는 공간제약이 있는 텍스트이다. 일반 텍스트는 개개인이 가까이서 읽는 것이 대부분이나, 슬라이드는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므로 글자크기 등이

너무 작아질 수 없고, 따라서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담을 수 있는 정보량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슬라이드에는 화자의 발화 중 일부 내용 또는 발화 내용의 골자만이 요약되어 담긴다. 또한 슬라이드에는 그림, 사진, 그래프 등 텍스트 외적인 요소가 포함되기도 하므로 텍스트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줄어든다. 실무서적에서도 슬라이드 제작 시 “내용은 되도록 적게 넣고 적당히 빈 공간이 있어야 보기 좋으며, 너무 꽉 차서 숨막히는 화면 구성은 청중에게 여유 없는 사람과 대면한 것 같은 부담감을 준다(조진영 2002: 85)”고 조언한다. 또한 슬라이드 문자가 너무 작아서 가독성이 떨어지면 청중의 집중력은 그만큼 떨어질 위험이 많다(박종태 2004). 이와 관련해 실무서적에서는 “표준서식은 28포인트에 18~22자 정도, 청중이 제대로 읽어주길 바란다면 12~15자 정도가 적당하다(박종태 2004: 28)”거나 “각 슬라이드마다 텍스트를 8줄 이하로 유지하고 각 줄은 8단어 이하로 유지하는 8x8 규칙(고광모 2004: 95)”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영목 등(2007: 34)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글자의 크기와 문장 혹은 단어의 수는 일률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청중의 규모나 좌석의 배치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글자의 크기와 문장의 수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은 ‘가장 뒷좌석에 앉은 청중이 글자를 볼 수 있는가’다”라고 설명한다.

셋째, 텍스트 구조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인 텍스트는 단어가 모여 구와 절을 이루고, 구와 절이 모여 문장을 이루고, 문장이 모여 단락을 이루고, 단락이 모여 전체 텍스트를 이루는 반면, 슬라이드는 이러한 위계적인 텍스트 형성구조를 무시한다. 우선 “단락”이라는 개념은 슬라이드에서는 거의 무의미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완전한 문장 형태 역시 사용 빈도가 낮고, 오히려 구(phrase) 또는 단어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공간적 제약이라는 슬라이드의 특성 과도 관련된다. 즉, 텍스트 생산자는 텍스트를 통한 의미전달과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공간의 효율적 사용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며, 그 결과 되도록 간결하고 압축적인 텍스트로 의미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구성요소를 필요로 하는 완전한 문장구조의 사용을 지양하게 된다. 영어의 경우, 엄격한 문법적 잣대의 구속을 받지 않는 헤드라인체(headline), 블록언어(block language), 기능어(function word)를 뺀 내용어(content word) 위주의 구성 등 약식 언어도 빈번히 사용된다. 실무지침서들도

“원고가 서술형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서술형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들만 뽑아 명사형 문장으로 짧게 정리하라(조진영 2002: 97)”,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문장은 필요치 않다(박종태 2004: 157)”, “명사들 또는 동사들로 표현하라(고광모 2004: 95)” 등 간결한 약식 언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넷째, 슬라이드는 문어(written text)와 구어(spoken text)의 중간 형태이다. 애초에 작성은 문어로 되었으나, 실제로 청중에게 전달되는 방법은 “읽기”와 “듣기”의 두 가지이다. 슬라이드는 청중이 읽을 수 있도록 보여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자에 의해 말로 전달되기도 한다. 또한 화자는 슬라이드를 보여줌과 동시에 발화행위를 계속하므로, 슬라이드를 읽고 있는 청자에게는 계속해서 말로 된 텍스트 역시 주어지는데, 이때 구어로 들어오는 정보는 슬라이드로부터 읽고 있는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비교적 낮은 것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청자는 읽기와 듣기에 필요한 인지적 자원을 어느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동원하여 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따라서 단일 형태의 텍스트를 처리할 때보다 청자의 인지적 부담이 커진다. 또한 일반적인 문어 텍스트는 독자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반면, 슬라이드를 읽는 시간은 독자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고 이는 화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독자의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메이어 등(Mayer 2003: 44)은 다매체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한 논문에서 여러 학자들을 인용하여 인간의 정보처리시스템은 듣는 정보와 보는 정보를 처리하는 두 개의 분리된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dual-channel assumption), 각 채널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음(limited capacity)을 언급한다. 또한 의미 있는 학습(meaningful learning)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인지적 처리작업(제시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해당 정보를 머릿속에서 일관된 구조로 재조직하는 것, 기존 지식과 통합하는 것 등)이 각 채널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

1) 메이어(2003: 43)의 정의에 따르면 “의미 있는 학습”이란 “주어진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즉 정보의 중요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상응하는 인지적 구조를 머릿속에서 구성하며, 기존의 지식과 통합하는 것(필자번역. 원문: deep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which includes attending to important aspects of the presented material, mentally organizing it into a coherent cognitive structure, and integrating it with relevant existing knowledge)”이다.

장한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감각기관에 입력된 정보가 단기기억을 거쳐 장기 기억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주의집중(attention)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정보는 감각기관 입력 단계에서 사라지고 만다(Nouri 2005: 55). 궁극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슬라이드가 의미 있는 정보처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인지적 부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메이어는²⁾ 한 인터뷰에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정보전달이며 둘째는 청중의 인지처리과정을 돕는 것(cognitive guidance)이라고 하며, 파워포인트 오용사례의 대부분이 청중의 인지처리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고 정보전달만을 우선시한 경우라고 하였다. 앞서 논의한 실무서적들에 나타나는 다양한 권고 및 지침들도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슬라이드라는 텍스트 유형은 일반적인 텍스트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며, 슬라이드를 번역할 때에는 이러한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슬라이드 텍스트의 특성을 바탕으로, 슬라이드 번역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나아가 슬라이드 번역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1) 간결성

슬라이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기능의 텍스트라는 점, 슬라이드의 내용은 화자에 의해 말로 설명된다는 점, 그리고 텍스트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슬라이드 번역은 분량상의 간결성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같은 분량의 정보를 최대한 간결한 언어형식에 담아내는 것이 간결성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특히나 도착텍스트가 출발텍스트보다 길어지는 것이 번역의 일반적 경향임(Berman 1985; Blum-Kulka 1986)을 감안할 때, 간결성 획득을 위해서는 적절한 번역전략의 사용이 요구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2) http://www.sociablemedia.com/articles_mayer.htm (인용일: 2011-06-11)

2) 단순성

간결성이 분량 측면의 척도라면 단순성은 언어구조, 특히 통사구조 측면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앞서 슬라이드의 특성에서 지적하였듯이 슬라이드를 사용한 발화상황에서 청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텍스트를 읽음과 동시에 듣는 작업까지 하며 정보를 처리한다. 이러한 청자의 인지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슬라이드에 포함된 텍스트의 통사구조는 되도록 단순한 것이 청자의 정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의미전달성

간결성과 단순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칫 텍스트 의미가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의미전달성을 세 번째 척도로 상정하기로 한다. 슬라이드는 시각적 디자인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언급했듯이 화자의 발화내용 중에서 중요도에 따라 선택된 것 또는 발화내용의 핵심 골자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전문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번역 학습자의 슬라이드 번역물과 전문번역사의 번역물을 비교 분석한다.

3. 전문번역사 대상 설문조사

번역 현장에서 슬라이드 번역수요 현황을 파악하고 번역 실무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총 12명의 영어-한국어 전문번역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6명은 특정기관 소속의 인하우스 번역사이고 다른 6명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번역사이다. 인하우스 번역사의 소속기관 업종분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사업, 금융업, 투자유치, 컨설팅 등이며, 프리랜서 번역사가 다루는 주제분야 역시 연구논문, 환경, 지리, 문화, 여행, 공공기관 홍보물, 경제, 경영 등으로 다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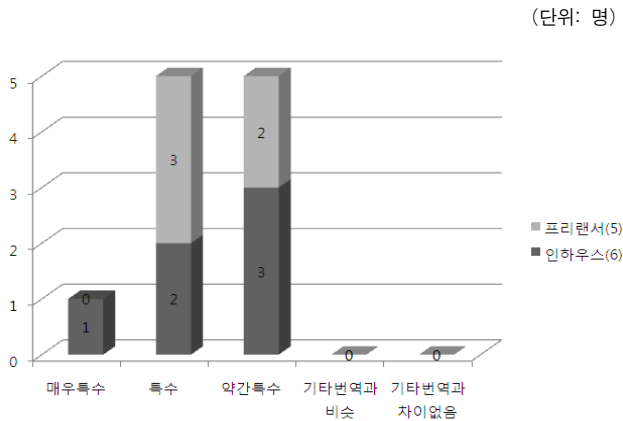
우선 전체 번역업무 중에서 슬라이드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래 표와 같다.

슬라이드 번역비중	인하우스(명)	프리랜서(명)	합계(명)
0%	0	1	1
0-20%	3	3	6
20-40%	1	2	3
40-60%	0	0	0
60-80%	1	0	1
80-100%	1	0	1
평균	37%	15%	26%

슬라이드 번역비중은 0-20%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40%(3명)였다. 평균은 각 항목의 중간값(0%, 10%, 30%, 50%, 70%, 90%)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전체 번역업무 중에서 슬라이드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하우스와 프리랜서가 각각 37%, 15%로 차이를 보이며, 본 설문만을 근거로 한다면 슬라이드 번역업무는 프리랜서보다는 인하우스 번역사에게 더 빈번히 주어진다고 볼 수 있고, 소속 기관의 특성에 따라 슬라이드 번역 비중이 더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슬라이드 번역의 주요 언어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11명(슬라이드 번역비중 0%로 대답한 1명 제외) 중 절대 다수인 9명이 “한국어→영어” 방향이라고 대답하였고, 양방향 업무량이 비슷하다고 대답한 사람 1명(인하우스), “영어→한국어”가 주요 방향이라고 대답한 사람 역시 1명(프리랜서)이었다. 따라서 국내 번역시장에서 슬라이드 번역의 언어방향은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이 주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통번역 시장의 추세와 관련될 것이다. 영어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원래 영어로 작성된 슬라이드는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제회의 자료 등이 모두 영어로 제작되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한국어 슬라이드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 발표자 중에서는 발표는 언어적 부담이 덜한 한국어로 하더라도 외국인 청중을 고려하여 슬라이드는 영어로 보여주고자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한영 방향으로 번역하는 일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

슬라이드 번역은 기타 유형의 번역에 비해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가진다고 느끼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래 도표와 같이 나타났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슬라이드 번역이 기타번역과 비슷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답변은 하나도 없었으며, 번역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슬라이드 번역이 기타 번역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슬라이드 번역이 가지는 특수성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공간제약과 간결한 번역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이 많았다(“공간의 제약이 있어 반복되는 부분을 빼거나 주요 내용만 번역할 필요” “내용이 압축된 간략한 형태로 번역되어야” “간결하게 형식에 맞춰 번역해야” “언어의 간결성” “지면 제약이 커서 텍스트의 간결성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간결성을 충족하기 위한 통사구조의 단순화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문장이 아닌 명사나 명사 형태의 절로 표현할 필요” “명사형으로 처리” “문장보다는 구의 사용이 두드러짐”).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사들은 약어의 사용을 권장했다(“header 번역 시 단어 약자가 중요함” “특정 집단 내에서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슬라이드에 약어 사용을 클라이언트가 선호”). 한영 번역에서 한자어 번역의 문제도 지적되었다(“한국어에서 간단하게 쓰이는 한자어를 영어에서는 한국어만큼 간단명료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짐” “예를 들어 ‘인식’을 ‘recognition’이라고 영문화하면 글자길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를

도형 안에 삽입하면 전체적인 형태가 망가짐”). 한편, 원문의 의미파악이 힘들다는 의견도 다수인 점이 흥미롭다(“조사가 빠져있고 단순하게 단어를 나열해 놓은 경우 배경 및 맥락이 없기 때문에 원문의 100% 이해가 어려움”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서 정확한 내용파악이 힘든 경우”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 숨은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기본적인 파워포인트 편집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그림파일 수정 등 기본적인 PPT 작성 기술은 알아야” “PPT 편집 기술도 필요”)과 “발표시 번역문은 보다 수월하고 평이하게” 번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번역대학원 재학 당시 수업 중 슬라이드 번역을 다룬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2명 중 6명이 “다룬 적 있다”로, 다른 6명은 “없다”로 대답하였다. 다룬 적 있다는 응답의 경우 그 횟수는 1회~3회까지로 나타났다. 그런데 응답자 12명의 출신 통번역대학원은 A대학원(9명), B대학원(2명), C대학원(1명)인데, 수업시간에 다룬 적 있다고 응답한 번역사들은 모두 A대학원 출신이었다. 따라서 A대학원에서는 슬라이드 번역을 비록 적은 횟수이지만 교육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기타 대학원은 본 설문만으로 교육현황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 통번역대학원에서는 슬라이드 번역교육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겠다.

4. 텍스트 분석

본 장에서는 동일한 슬라이드 출발텍스트(ST)에 대한 전문번역사와 통번역대학원 재학생의 번역물을 비교 분석한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텍스트 분석을 위해 한국어 ST를 선정하였다. 총 3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ST는 다음과 같다. 본 텍스트는 2009년 2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009년도 규제개혁 종합계획”의 일부를 발췌하여 슬라이드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슬라이드 1>

목차

- I.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이건 및 방향
 - 1. 추진이건
 - 2. 추진방향
- II.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 1. 규제개혁교제의 신속한 추진
 - 2. 신설·강화규제의 품질제고
 - 3. 규제개혁인프라 정비·확충
 - 4.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 제고
- III. 추진일정

<슬라이드 2>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 기본틀

추진 교제 · 전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자리창출 등 경기활성화</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민·취약계층 중산층지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장동력 신원육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민생활 편의제고</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속도감있게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p>	일자리창출 등 경기활성화	사민·취약계층 중산층지원	신장동력 신원육성	국민생활 편의제고
일자리창출 등 경기활성화	사민·취약계층 중산층지원	신장동력 신원육성	국민생활 편의제고		
추진 방향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합력'이 되는 규제는 차우고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다짐'을 넣는 규제개혁 </p>				
추진 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 중산층과 취약계층 등 서민고통 가중 ◆ 미래대비 신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준비 본격화 				

<슬라이드 3>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고제

구분	주요제	고제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지원	- 일자리 지키기·민들기틀 위한 규제개선 - 민간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 - 주택규제완화 및 토지이용 효율화 - 기업의 소유·영업 규제 개선 - 기업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391개 (39%)
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 시민들의 주거·통신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국민총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 중소기업 자금 및 영업활동 부담 경감	343개 (34%)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 녹색기술산업·첨단융합산업 기반확충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시장확대	40개 (4%)
국민생활 편의제고	- 민원처리 개선 - 경제활동 및 교통 불편 개선	228개 (23%)

위 ST에 대한 전문번역사 3명(인하우스 2명, 프리랜서 1명)과 통번역대학원 3학기차 재학생 3명의 번역물을 분석하였다. 참가자 모두 A언어가 한국어, B언어가 영어이다. 참가자 모두에게 동일한 번역브리프(“우리나라 정부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정부대표들에게 규제개혁계획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한다. 이 때 사용할 PPT 슬라이드를 번역하십시오.”)가 주어졌으며, 제한시간 역시 1시간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번역을 수행하였다. ST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주어졌으며, 도착텍스트(TT)도 파워포인트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래 논의에서는 번역 간결성의 척도로 텍스트의 길이를, 의미전달성의 척도로 내용 누락이 발생한 의미단위수를 살펴보고, 단순성은 해당 예문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번역의 간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텍스트의 길이일 것이다. 모든 참가자 TT의 총 단어수 및 문자수는 다음 표와 같이 산출되었다.

	단어수(개)				문자수(개)			
	#1	#2	#3	합계	#1	#2	#3	합계
전A	47	75	134	256	296	467	731	1,494
전B	34	84	123	241	306	521	851	1,678
전C	51	74	142	267	352	462	816	1,630
전문번역사 평균	44	78	133	255	318	483	799	1,601
학A	35	65	98	198	249	389	527	1,165
학B	55	77	152	284	331	507	979	1,817
학C	58	99	146	303	390	578	891	1,859
학생 평균	49	80	132	262	323	491	799	1,614

전: 전문번역사 / 학: 학생 / #: 슬라이드 번호

단어수와 문자수 모두 전문번역사가 학생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슬라이드별로 보더라도 두 그룹의 TT길이가 거의 비슷한 3번을 제외한 1, 2번 슬라이드 모두 전문번역사의 TT 분량이 더 적다. 참가자들을 개별적으로 살펴 보면, 단어수를 기준으로 전문번역사는 최소 241개에서 최대 267개로 그룹 내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최소단어수와 최대단어수 차이 26), 학생은 최소 198개에서 최대 303개까지로(최소단어수와 최대단어수 차이 105) 그룹 내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학생 A의 경우 단어수가 모든 참가자 중에서 가장 적고 전문번역사 그룹보다도 눈에 띄게 적어서 절대적인 텍스트 분량 면에서만 본다면 최대의 간결성을 보인다.

다음은 번역의 ST 의미전달성을 보기 위해 각 TT의 원문내용 누락(omission)을 분석한 표이다³⁾. 번역에 사용된 ST는 대부분 명사 또는 명사구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석의 편의상, 나열된 명사구 하나하나를 번역단위로 보고 ST를 총 46개의 번역단위로 나누어 각 참가자마다 내용누락이 발생한 번역단위의 개수를 다음 표와 같이 파악하였다.

3) 의미전달성의 척도로 누락에 중점을 둔 이유는 공간제약이라는 슬라이드 번역의 특수성과 가장 관련이 크기 때문이다. 도착어의 자연스러움이나 문법오류는 번역능력 뿐 아니라 언어능력에도 관계가 깊고, 원문의 오역(예를 들어 금융위기를 financial crisis라고 하지 않고 economic crisis로 번역한 것 등)은 공간제약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누락 발생한 번역단위 수(개)
전A	5
전B	4
전C	2
전문번역사 평균	3.7
학A	23
학B	2
학C	3
학생 평균	9.3

우선 각 그룹별 평균을 보면 전문번역사(3.7개)보다 학생(9.3개)의 번역에서 내용누락이 더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생 그룹의 내용누락 평균이 높아진 것은 학생 A의 내용누락이 눈에 띄게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 A는 앞서 텍스트 분량에서는 최소 단어수를 기록한 참가자이다. 즉, 학생 A가 적은 단어수로 간결성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ST의 내용을 누락시킨 것이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수치들을 종합하자면, 전문번역사의 번역은 평균적으로 학생의 번역보다 분량상 더 간결하면서도 원문의 내용을 더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학생의 경우 분량이 간결하면 내용 누락이 많아지고,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면 텍스트의 분량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즉, 간결성과 의미전달이라는 상충되는 목표가 있을 때 학생들의 번역은 어느 하나를 희생하는 반면, 전문번역사들은 두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편이다. 여기에는 동일한 정보를 더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전략상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전문번역사 B와 학생 C의 번역을 비교해본다. 전문번역사 B와 학생 C는 각각 번역물의 분량이 단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참가자 중에서 가장 짧고 가장 길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내용누락 번역단위의 수는 각각 4개와 3개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좋은 비교 대상이 된다. 먼저 <슬라이드 1>의 번역부터 살펴본다. 논의의 편의상 간결성과 단순성에 초점을 맞추고 도착어 표현상의 문제나 문법오류 등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 ST) I.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여건 및 방향
 전B) I. Background & Direction of 2009 Regulatory Reform
 학C) I. Conditions and directions of the 2009 regulatory reform

번역사 B는 and 대신 기호(&, ampersand)를 사용하고 있다. “&”의 사용은 참가자 전원의 번역물에서 한 번 이상 사용된 것으로 보아 텍스트를 축약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 C는 규제개혁 앞에 정관사 “the”를 쓴 반면 번역사 B는 관사 없이 번역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슬라이드상의 언어는 엄격한 문법적 규칙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므로 규제개혁 앞에 “the”를 쓰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맥락에 따라서는 문장형 텍스트라 하더라도 “the”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학생 C가 “the”를 쓴 것은 일상적인 번역연습이 문장형 텍스트를 주로 다루는 데서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 ST) 2. 신설·강화 규제의 품질제고
 전B) 2. Quality Assurance of Newly-enacted/Reinforced Regulation
 학C) 2. Re-examining the quality of the newly establish or strengthened regulations

우선 “품질제고”는 한국어텍스트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축약형 한자어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이를 번역사 B는 “Quality Assurance of …”로, 학생 C는 “Re-examining the quality of …”로 각각 번역하였다. “제고”를 “보증(assurance)”으로 번역한 것과 “제고”를 “재고”로 보고 re-examine으로 오역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품질제고”를 “품질을 제고하다”로 풀어서 번역한 학생 C의 번역은 “품질제고”라는 한자어의 압축을 그대로 가지고 간 번역사 B의 번역보다 우선 단어수가 더 많다. 앞서 문법적 규칙의 구속이 덜 하다고 했으므로 학생 C의 번역에서 “the”를 빼고 “Raising quality of …”로 고칠 수도 있으나 번역사 B의 번역처럼 “명사+명사”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면 간결성을 위해 문법규칙을 희생할 필요도 없어진다.

“신설·강화”에서 중간점(·)을 번역사 B는 기호(/, slash)로, 학생 B는 “or”로 번역하고 있다. 이 중간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의 품질제고”를 의미할 수도 있고, “신설된 규제와(그리고) 강화된 규제

의 품질제고”를 의미할 수도 있다. 즉 “and” 또는 “or”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학생 C의 번역에서는 “and”의 의미가 배제된다. 그러나 번역사 B는 and/or을 축약하는 기호인 “/”를 사용하여 간결성과 의미전달성을 모두 높이고 있다. 다음으로 <슬라이드 2>의 번역을 보자.

- ST)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 기본틀
 전B) 2009 Regulatory Reform Framework
 학C) Basic framework of the 2009 regulatory reform

번역사 B는 한국어의 명사 나열구조를 영어에 그대로 가지고 간 반면, 학생 C는 “기본틀”을 먼저 내세워 “명사 of 명사” 구조로 번역하였다. 위의 예에서 “품질제고”를 “품질을 제고하다”로 풀어서 해석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내용이 모호할 경우 경험이 적은 번역자일수록 번역자 개인의 해석이 많이 개입되고 명시화(explicitation)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블룸-쿨카(Blum-Kulka 1986: 293)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기본틀”을 “basic framework”로 번역한 것은 framework에 basic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을 모른 데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원문충실도가 간결성보다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문장형 일반텍스트 번역 연습에 영향 받은 것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같은 정보를 전달하되 텍스트 분량은 더 늘어났다.

- ST)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전B) Economy Revitalization thru Job Creation
 학C) Efforts to boost the economy such as job creation

번역사 B는 단어를 축약해(“thru”) 씌으로써 그만큼 텍스트 분량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단어축약전략(예: government를 gvnt로, management를 mgnt로 줄여 쓰는 것)은 지면제약이 극심할 경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자칫 가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여유 공간이 있다면 줄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전문번역사들은 위의 예시 이외에는 이러한 철자축약 전략을 쓰지 않은 반면, 학생 A의 경우 regulation을 reg로, 학생 B의 경우 infrastructure를 infra 등으로 줄여서 번역했다.

번역사 B의 번역은 분량상 간결하기는 하나 사실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의 의미로서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다른 경기활성화 수단도 있음을 뜻하는 한국어 “등”의 의미가 누락되었다. 반면 학생 C의 번역은 “efforts ... such as ...”의 구조를 사용해 ST “등”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였지만 그만큼 간결성이 떨어진다. “Economic stimulus, e.g. job creation” 등으로 번역하면 의미전달성과 간결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ST) 서민·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
- 전B) Support of Ordinary People, the Vulnerable & SME
- 학C) supporting mid & small businesses,; everyday people

번역사 B는 “중소기업”을 “SME”로, 학생 C는 “mid & small businesses”로 번역했다. 일반적인 문장형 번역에서는 대개 약자를 쓸 경우 처음 한 번은 완전한 명칭을 함께 언급하여 독자와 약자에 대한 합의를 하고 쓰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슬라이드는 보조적인 텍스트이고 화자의 부연설명이 가미된다는 점, SME는 비교적 널리 통용되는 약어라는 점, 그리고 해당 슬라이드 자체가 도해 형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자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번역사 B는 중소기업을 “SME”로 줄여 씀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을 좀 더 충실히 번역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더 간결하고 의미전달성도 높아졌다. 다만 지적하자면 SME는 복수형 SMEs로 쓰면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공간이 많지 않으면서도 내용적, 문법적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ST)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치우고”
경제위기 극복과 제도약에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
- 전B) Regulatory Reform to ‘Clean up the Regulatory Obstacles’ and to ‘Place a Stepping Stone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to Jump Up the Economic Level’
- 학C) getting rid of the regulation that interfere with business operations and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and reforming it so that it could work as a steppingstone for economic recovery and prosperity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번역사 B는 “regulatory obstacles”로, 학생 C는 관계사절을 사용해 “regulation that interfere”로 번역하여 학생 C의 번역은 길어질 뿐 아니라 통사구조도 복잡하다.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 부분도 번역사 B는 to 부정사 구문으로 간결하게 처리하고 있는 반면 학생 C는 “so that 주어+동사” 구문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다만 번역사 B의 번역에서는 원문의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역 모두 원문 마지막의 “규제개혁”을 살려서 번역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해당 부분의 내용 전체가 “규제개혁”을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번역사 B의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학생 C의 번역은 “디딤돌을 놓는” 부분만이 규제개혁을 수식하게 된다.). 그러나 문서 전체가 규제개혁에 대한 것이고 앞에서도 여러 차례 규제개혁이 언급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이를 아예 생략한 번역사 A의 번역도 무방하며 간결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move “stumbling blocks” of business activity & people’s life
Create “stepping stones” to overcome economic crisis & revitalize the economy

다음으로 <슬라이드 3>에 대한 번역을 보자.

ST) 기업의 소유·영업 규제 개선
전B) Reforming Corporate Ownership/Sales Regulations
학C) Improving regulation regarding business ownership and operations

번역사 B는 “기업의 소유·영업”을 “규제”에 대한 형용사처럼 사용하여 한국어의 명사 나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한편 기호(/)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번역한 반면, 학생 C는 “기업의 소유와 영업에 관한 규제를 개선”이라고 해석하여 이를 TT에서도 명시화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텍스트가 길어지고 있다. 아래 예시도 비슷한 경우이다.

ST) 중소기업 자금 및 영업활동부담 경감
전B) Mitigating SME Fund/Sales Burdens

학C) Lowering the burdens related with business activities and financing
for small & mid sized companies

학생 C는 중소기업을 “small & mid sized companies”로 풀어 쓴 것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활동과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경감”으로 해석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related with” “for” 등 연결어구와 전치사를 사용하여 간결성이 떨어지고 통사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ST) 민원처리 개선

전B) Improving the Civil-complaint Settlement Procedure

학C) Improving the way we deal (with) civil complaints

(괄호 안) 필자 삽입

여기서는 두 번역이 분량은 비슷하나 번역사 B의 번역은 “동사+목적어”의 비교적 단순한 통사구조인데 반해, 학생 C의 번역은 목적어(“the way”)를 다시 “주어+동사(we deal …)”로 이루어진 절이 수식하도록 되어 있어 통사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물론 학생의 번역이 번역사보다 간결성이 더 높은 부분도 있었는데, 주로 반복된 내용을 생략하는 전략이 사용되었다.

ST) I.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여건 및 방향

1. 추진여건

2. 추진방향

전B) I. Background & Direction of 2009 Regulatory Reform

1. Background

2. Implementation Direction

학C) I. Conditions and directions of the 2009 regulatory reform

1. conditions

2. direction

번역사 B는 “추진방향”을 “implementation direction”으로 번역한 반면, 학생 C는 “추진”을 모두 생략하였다. 모든 계획은 이미 “추진”을 전제로 하는 개

념임을 고려한다면 해당 부분에서 모두 생략하여도 내용 전달 상 무리가 없으며 간결성도 높아진다.

ST)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전B) Regulatory-Reform Initiatives by Category

학C) Main reforms in each sector

여기서도 학생 C는 반복되는 “규제개혁”을 생략하여 간결성을 높였다. “주요”의 의미가 누락된 번역사 B의 번역보다 의미전달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번역물의 완성도에 대해 언급하자면, 학생 B와 학생 C의 번역에서는 <슬라이드 3>의 맨 오른쪽 칼럼에 개수 단위인 한국어 “개”가 번역되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은 번역이라기보다는 해당 글자를 지우기만 하면 되므로 시간 제약 때문에 간과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 B의 번역은 <슬라이드 3>에서 TT 분량이 많이 늘어나 표가 확장되었는데 이를 조정하지 못해 실제로 슬라이드쇼를 실행했을 때 보이는 부분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번역사들은 모두 글자크기 조정 등을 통해 슬라이드의 모양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다. 물론 번역 경력에 따른 속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경우 평소 지면 제약이 없는 문서작성프로그램으로 번역을 연습하다 보니 파워포인트 상에서 번역하는 것이 생소하여 시간이 더 촉박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슬라이드라는 텍스트 유형이 가지는 특성을 기반으로 슬라이드 번역 평가 기준으로 간결성, 단순성, 의미전달성의 세 가지를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번역사 3명과 통번역대학원 재학생 3명의 한영방향 슬라이드 번역물을 비교 분석하였다. 번역사들은 학생들에 비해 기호와 약어의 사용, 명사구 등을 이용한 압축, 반복되는 내용 삭제 등의 간결화, 단순화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사하며 같은 양의 정보를 더 적은 분량의 텍스트에 담아내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학생의 번역은 간결성, 단순성, 의미전달성 중 하나가 희생되

거나 상호 위배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번역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번역 현장에서 슬라이드 번역을 다루는 일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슬라이드는 기타 텍스트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적절한 번역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번역사 양성교육에 시사점을 가진다. 우선 완전한 문장 형태로 이루어진 텍스트뿐 아니라 소위 볼렛포인트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요약형 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번역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양의 정보를 좀 더 간결하고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도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워드프로세서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상에서 번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번역사와 학생의 번역에서 나타나는 슬라이드 번역 전략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쳤으나 이러한 번역 전략의 객관적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세분화된 전략 분석과 사용자 반응 등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학문적으로, 또한 실용적으로 보다 활용도 높은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분량의 한국어, 영어 슬라이드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슬라이드 텍스트에 나타나는 언어별 관습을 파악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광모 · 옴김 (2004) 『프레젠테이션의 기술』, 서울: 지식공작소. (Jennifer Rotondo, Mike Rotondo. 2001. Presentation Skills for Managers, New York: McGraw-Hill.)
- 박종태 · 김현호 · 옴김 (2004) 『감동의 20분 마법의 프레젠테이션 기술』, 서울: 이비컴. (TODA Satoru. 2002. Presen No Oni, Tokyo: Shoeisha.)
- 조진영 (2002) 『프레젠테이션 전략과 실전 노하우』, 서울: 도서출판 길벗.
- 하영목, 최은석 (2007) 『설득력과 리더십을 2배로 높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의 정석』, 서울: 팜파스.
- Berman, Antoine (1985) 'Translation and the Trials of the Foreign', (L. Venuti,

- Trans.). I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2 ed., pp. 276-289), New York: Routledge.
- Blum-Kulka, Shoshana (1986) 'Shift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Translation', I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2 ed., pp. 290-305), New York: Routledge.
- Mayer, Richard and Roxana Moreno (2003) 'Nine Ways to Reduce Cognitive Load in Multimedia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38(1), 43-52.
- Munday, Jeremy (2008)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2nd ed.), New York: Routledge.
- Nouri, Hossein and Abdus Shahid (2005) 'The Effect of Powerpoint Presentations on Student Learning and Attitudes', *Global Perspectives on Accounting Education*, 2, 53-73.
- Rosenblatt, Bernard and Richard Cheatham and James Watt (1977) *Communication in Business* (2nd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Seiler, William and Scott Baudhuin and David Schuelke (1982) *Communication in Busines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Abstract]

Translation of Powerpoint Slides as a Visual Aid
— A Comparison of Professional and Student Translators

An, Ser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s the use of Powerpoint presentation, a Microsoft application software, becomes commonplace, translators are increasingly called upon to work on Powerpoint slides which are to be used as a visual aid to accompany speech even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12 Korean-English professional translators, which provided an insight into the market demand for slide translation and indicated that the majority of slide translation is being done in the Korean to English direction. Textual features specific to Powerpoint slides were examined, and actual works of professional translators were analyzed in comparison to those of translation students, drawing upon three proposed principles of slide translation: concision, simplicity, and coherence with ST. The analysis found that professional translator's work was shorter in length and retained more of ST content than that of students, suggesting different degrees of consideration given to the textual functions of Powerpoint slides and the situational context.

▶ Key Words: Powerpoint, slide, translation, concision, simplicity, coherence with ST

[별첨] 실험참가자 6인의 번역물 전문

전문번역사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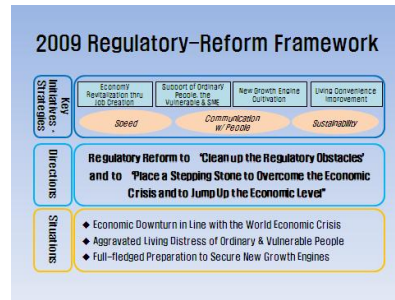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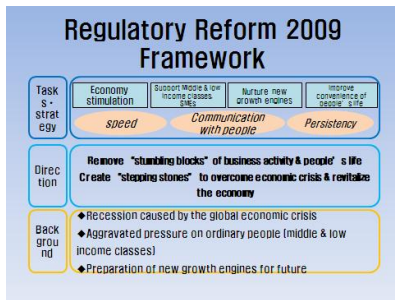
Contents

- I. Background & Direction of Korea's Regulatory Reform in 2009
 1. Background
 2. Direction
- II. Plans of Korea's Regulatory Reform in 2009
 1. Speedy implementation of reform tasks
 2. Improvement of new & reinforced regulations
 3. Modification & expansion of reform infrastructure
 4.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 public sensory level of reform
- III. Reform Schedule

전문번역사 B

Index

- I. Background & Direction of 2009 Regulatory Reform
 1. Background
 2. Implementation Direction
- II. Implementation Plan of 2009 Regulatory Reform
 1. Speedy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Reform
 2. Quality Assurance of Newly-enacted/Reinforced Regulation
 3. Regulatory-reform Infrastructure Alignment/Build-up
 4. Regulatory-reform Effectiveness Assurance
- III. Timeline



Major Regulatory Reform Tasks By Sector

sector	Major tasks	No. of items
Support economy boost (job creation etc.)	- Enhance regulations to retain & create employment - Promote of InVE & foreign investment - Dispersed housing & effective land use - Improve regulations on company ownership & operation - Reasonable controlled environment regulations	301 (30%)
Support middle & low income class	- Reduce housing, communication, medical expenses - Expand support for the extreme poor & the vulnerable - Easy SMEs, burden on fund & government security	343 (34%)
Nurture new growth engines	- Build foundation for green tech & high tech convergence industries - Expand markets for high added value industry	40 (4%)
Provide convenient life for citizens	- Improve responses to civil complaints - Enhance citizens' life in economic activity & traffic issues	228 (23%)

Regulatory-Reform Initiatives by Category

Category	Key Initiatives	No.
Economy Revitalization thru Job Creation	- Reforming Regulations to Secure and Create Jobs - Attracting Private & Foreign Investments - Mitigating Housing Regulations and Upgrading Land-use Effectiveness - Reforming Corporate Ownership/Sales Regulations - Rationalizing Business-Environment Regulations	391 (39%)
Support of Ordinary People, the Vulnerable & SME	- Mitigating Living-, Telecommunications- & Medical-cost Burdens of Ordinary People - Mitigating Economic-Aid Criteria for the Vulnerable and the Destitute - Mitigating SME Fund/Sales Burdens	343 (34%)
New Growth Industry Cultivation	- Securing a Foundation for Green Technologies & Culture-online Convergence Industries - Expanding the High Value-added Service Markets	40 (4%)
Living Convenience Improvement	- Improving the Civil-complaint Settlement Procedure - Solving the Inconvenience of Economic Activities and Transportation	228 (23%)

전문번역사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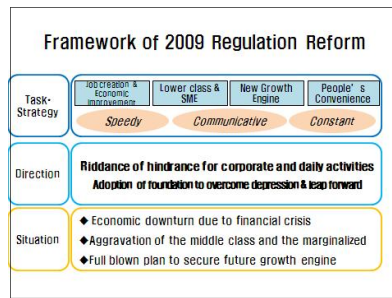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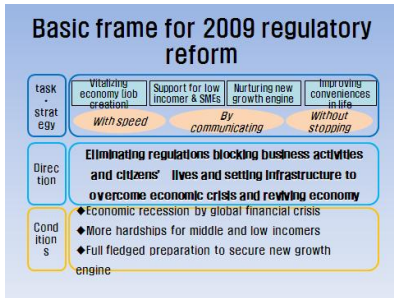
Contents

- I. Conditions and direction of 2009 regulatory reform
 1. Conditions to pursue regulatory reform
 2.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 II. Plan for 2009 regulatory reform
 1. Rapid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reform tasks
 2. Improving quality of new and strengthened regulations
 3. Securing and streamlining infrastructure for regulatory reform
 4. Improving effectiveness and public sentiment
- III. Schedule for regulatory reform

학생 A

Table of Content

- I. Circumstances and Directions of 2009 Regulation Reform
 1. Circumstances
 2. Directions
- II. Execution Plan of 2009 Regulation Reform
 1. Swift Execution
 2. Quality Improvement of New & Reinforced Regulation
 3. Securing & Organizing Required Infrastructure
 4. Effectiveness
- III. Execution Schedule



Major Task by sector

Section	Major tasks	No. of tasks
Support to vitalize economy such as job creation	- Easing regulation to save & create jobs - Vitalizing private & foreign investment - Easing regulation for housing and effective land usage - Improving regulation for owning and managing businesses - Rationalize business related environment regulation	391 (39%)
Support for low income and marginalized brackets and SME	- Easing burden for housing, communication and medical fees of low income - Lowering support standard for those in the extreme poverty and vulnerable - Reducing financial and management burden for SME	343 (34%)
Nurturing industries with new growth engine	- Securing base for green technology and hi-tech convergence industries - Expanding markets for high value-added service industries	40 (4%)
Improving conveniences in people's living	- Improving civil service - Reviving economic activities and improving transportation system	228 (23%)

Major Reform Tasks

Category	Major Tasks	# tasks
Economic Recovery	- Security and Creation of Jobs - Investment Attraction to Private sector & from Foreigners - Easing of Housing Reg & Effectiveness of Land Use - Reg for Corporate Property & Operation - Environmental Reg for Corporations	391 (39%)
The Marginalized & SME	- Living/Medical Expenses & Phone Bills - Standard for the Socially Marginalized - Capital & Operational Burden	343 (34%)
New Growth Engine	- Green & Cutting Edge Convergence Tech. - Value-added service industries	40 (4%)
Convenience	- Complaint Settlement - Economic Activities & Transportation	228 (23%)

학생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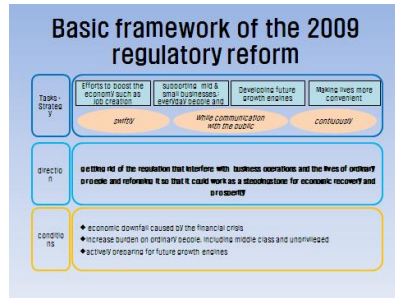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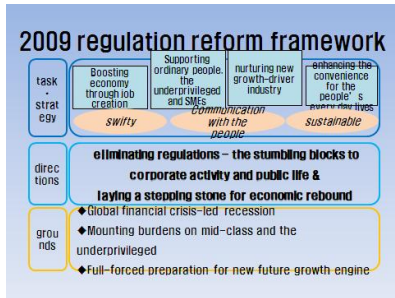
Contents

- I. The direction of and grounds for year 2009 regulation reform
 1. the grounds
 2. the direction
- II. Plans for 2009 regulation reform
 1. swift proceeding of regulation reform related to task
 2. upgrading the quality of new and strengthened regulation
 3. establishing and realigning infra for regulation reform
 4. enhancing the feasibility and real effect of regulation reform
- III. Regulation reform schedule

학생 C

Table of Contents

- I. Conditions and directions of the 2009 regulatory reform
 1. conditions
 2. direction
- II.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2009 regulation reform
 1. Swift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 reform
 2. Re-examining the quality of the newly establish or strengthened regulations
 3. Strengthening maintenance and infrastructures for regulation reform
 4. re-examining the efficiency and the level of impact created by the regulatory reform.
- III. implementation schedule



key regulation reform-related tasks by sectors

Items	Key Tasks	Number of tasks
Boosting economy through job creation	-revising regulations related to job detainment and creation - facilitating private and foreign investment - easing regulations related to land and facilitating efficient land use - improving regulations related to corporate ownership and business - designing reasonable regulations related to corporate business environment	391개 (39%)
Supporting ordinary people, the underprivileged	- cutting the ordinary people's burden of housing, communication, medical costs - easing supporting criteria for the low-income class and the underprivileged	343개 (34%)

Main reforms in each sector

classification	Main tasks	Task number
Efforts to revive the economy such as job creation	- Reforms focused on job creation and job protection - visiting foreign and private investments - liberalizing the housing market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land usage - improving regulation regarding business ownership and operations - Rationalizing business environmental policies	391개(39%)
supporting small & mid size business, normal and marginalized people	-Lowering the cost of housing, communications and medical service for everyday people - increasing support for low income and marginalized people - Lowering the burdens related with business activities and financing for small & mid sized companies	343개(34%)
Developing future growth engines	- Strengthening the bases for green and combined high tech industries - Strengthening high value service industries	40개 (4%)
Enhancing the convenience of life	-improving the way we deal with complaints -improving business conditions and public transportation	228개(23%)

안세림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과정

serime@hotmail.com

관심분야: 통번역능력, 통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1년 06월 24일

심사완료일: 2011년 09월 02일

게재확정일: 2011년 09월 14일